

최악의 현장에 복음의 파수망대를 세운 70인 제자 디도 -복음으로 여는 디도서- 이사야 6:8, 디도서 1:12-14

정윤돈 목사님

- * 사6:8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 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 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 * 딤후1:12-14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 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 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준공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게 살다가 천국에 가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첫 인간이 어리석 어 불신양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 만까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오직 예수님을 구원 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237 땅끝까지 살리는 주역으로 성 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받고 힘을 얻고 생명 걸 이유 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도제목과 문제와 목표를 가지고 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나와 교회와 민족과 나라에 주시는 미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리더수련회와 램네프대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금요일에는 약 50명의 성도들이 대구에서 Remnant Night까지 참여했다. 우리는 남은 자다. 현장에 가보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 적다. 많은 종교가 있지만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참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아주 소수다. 여러분이 주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다. 현장에 가면 여러분 한 명밖에 없다. 그 래서 속으면 안 된다. 거기서 파수망대와 등불이 되어야 한다. 전도자의 고 백 가운데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 ① 복음 가진 후대들은 가정에 밥 먹으 러 가고 자리 가지 말고 램네프로 가라고 했다. 여러분이 나이가 많은 적 든 간에 복음 가진 후대들은 가정을 살려야 한다. 하나님은 교회 이전에 가정을 만드셨다. 가정을 살리는 게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다. 현장을 살리 기 바란다. ② 학교에는 공부하러 가지 말고 학교에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 우기 바란다. 제가 좋은 학교를 가지 못했지만 거기서 말씀운동을 해야겠 다는 생각을 했다. 복음 가진 교수님을 추리고 말씀드려서 점심마다 예배 를 드렸다. 학교 안에 망대를 세워라. 그러면 모든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음 안에 다 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셨 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된다고 하셨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저는 시대를 살릴 일곱 램네프와 같은 후대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한다. ③ 미래를 준비하는 것보다 미래를 가지고 가라고 했다. 우리의 방법은 세상 의 방법과 다르다.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만 하는데 응답 받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다. 이 오직들이 하나가 된 것이 오직 예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예배다. 그래서 예 배에 성공하면 개인과 후대도 다 성공하게 된다. 현장을 살려야 한다. 정확 한 언약과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서밋으로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는 응답, 시대를 앞서가는 응답 받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서라도 보내신다. 그래야 세계복음화를 하기 때문이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유대인처럼 교육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교육은 우리 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은 끝까지 후대를 지킬 수가 없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지키셔야만 한다. 제일 쉬운 방법은 여러분 자녀를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버리고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복 음 안에서 내가 먼저 누리지도 못한다면 후대에게 방해만 될 뿐이다. 후대

가 70나라, 70종족, 70현장 살릴 것이다.

이샤야 선지자와 디도는 최악으로 어려운 현장으로 파송되었다. 그러나 이샤야 선지자는 당당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했다. 어려운 현장이라고 피해다니면 시대 살릴 램네프가 아니다. 문제가 있 다면 기도하고 주역으로 설 수 있어야 한다. 직장, 가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서 답을 얻고 현장을 살려야 한다. 교회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데에서 다 더하실 것이다. 문제 를 해결하는 램네프가 되라. 그렇기 때문에 디도도 사도 바울의 명령에 이 유 있는 순종과 복종을 하였다.

오늘은 디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디도는 이 방 TCK출신이었지만 교회들과 선교현장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파송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복음의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디도는 많은 유대인들보다 복음이 통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말이 통하는 유대인을 보 낸 게 아니라 TCK인 디도를 보낸 것이다.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이 되어야 한다. 만약 제가 형제들과 싸웠다면 가정 다 깨졌을 것이다. 그 러나 저는 그렇지 않았다.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 을 것임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화 평케 하면서 이를 증명해야 한다. 친구 사이도 중재하고 화평케 하는 게 빛이다. 저희 큰 누님 친구들은 학교 다니면서 담배 피고 춤추고 잘 나가 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다 큰 누님께 영향 받고 교회에 다닌다. 하나님 이 주시는 다른 평안함이 있다. 그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화 평케 하고, 평안을 어떻게 누리는지 알려줘야 한다. 별 것 아닌 걸로 가정 안에서 싸우고 다투는 건 예수님이 내게 주인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수 님이 주인될수록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 은 죄도, 문제도 다 용서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란다. 지 금의 문제는 허상이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반드시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데 지 금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미래를 앞당겨 봐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어떤 계약이다. 저는 교회 안에서 최고의 전도사, 대통령, 과학자, 정치인이 나 올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한다. 이러한 삶, 화평케 하는 삶은 복음이 우리의 영혼에 각인, 뿌리, 체질 되었을 때 가능하다. 그레데 섬은 그리스도마 문 명이 가장 먼저 태동한 곳이다. 우상 문화가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다. 거 짓말하고, 우상문제 속에 있는 현장이었다. 이 가운데 무술, 점술, 우상 등 최악으로 타락한 현장인 그레데 섬에 파송된 디도는 이렇게 복음이 체질화 된 그리스도의 제자였다.

1. 그레데 사람들의 문제점들과 불신자상태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디도는 이러한 최악의 현장에 파송되었지만 사건과 사람들과 사탄에게 속지 않고 복음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현장을 치유하고 최고의 파수망대를 세운 파수꾼이 되었다.

(1) 첫째로 그레데 섬에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 많았다. 디도서 1장 10절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완전히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 이다. 부모님, 목사님 말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들은 쓸데없는 말, 헛된 말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어떤 목사님이 류목사님 과 4시간 동안 같이 차 탈 시간이 있었는데 4시간 동안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누리지 않는 사람들은 속인다는 특 징이 있다.

(2) 1장 10절 하반절을 보면 유대인 할례파 이단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다. 할례파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과 함께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독교 유대인들을 의미한다. 그들은 복음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 옛 습관과 전통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복음이 안된 사람들이었다. 여러분도 오직이 이해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란다. 그 안에 다 있다.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는데 모른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오직하면 다 해결된다.

(3) 그리고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였다. 요즘 아파트 짓는데 순살아파트라고 철근이 없는 아파트 도 있더라. 그런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하늘보좌의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밥 벌어먹지도 못한다. 또 사단은 악한 짐승이다. 정신적인 문제로 드러나지 않은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인간 이하의 삶과 행동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돈은 일반 악의 뿌리 다. 돈 중심이기 때문에 짐승 수준이다. 다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위해 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고귀한 존재다. 생명

살리는 일이 여러분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이 성공자다. 살면서 뭔가를 많이 이루어도 지옥가면 다 소용 없다. 교수가 되더라도 대단한 인생 아니다.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기 바란다. 잠언에는 ‘탐심하는 자의 친구가 되지 말라’고 했다. 또 자기 이권을 바라는 사람들은 게으르다. 여러분은 직장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될 것들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핑계 대야하고 노예되어야 하고 꾸지람 들어야 한다. 일곱 램넌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먼저 구원받는 게 중요하고, 서밋이 될 때까지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 받았지만 나, 나의 것, 나의 현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고 도전하지 못한다. 시대를 앞서가야 한다.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앞서가야 한다. 1장 12절에 나오는 ‘어떤 선지자’는 그리스 철학자 ‘에피메네테스’이다. BC.7세기에 활동했던 사람이다. 그는 그레데 출신으로 신적 영감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당시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라고 불렀다. 그레데 섬은 바울이 활동하기 7백 년 전부터 우상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항상 거짓말하는 현상이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현장에 디도를 보냈다. 우리 성도들과 램넌트들은 이러한 현장에 가야 한다. 세상 현상은 항상 가식적으로 사는 ‘거짓말쟁이’들이 가득하고 ‘악한 짐승’과 같이 살아가고 오직 ‘자신들이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해주는 ‘With, Immanuel, Oneness’의 은혜와 천군천사들을 통해 보호해 주시는 하늘 보좌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 니중에는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했다. 우리는 다 양보하고 사랑하고 주께 맡기면 된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다. 사도 바울과 디도는 이 사실을 믿고 최악의 현장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것이다.

2. 디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천국에서의 영생복락을 작정해 주셨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편집, 설계, 디자인이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 후반 절에 보면, “이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세 전에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경륜 가운데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인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신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를 전도하니까 재수 없게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전도한다고 하는 친구가 있었다. 재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다.

(2) 두 번째로 복음전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다. 디도서 1장 3절이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도자들을 통하여 전달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다락방과 지교회 현장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집중기도를 하다가 디도를 현장에 파송하였다. 즉, 모든 문제는 말씀운동의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이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복음을 잘 안 받는다. 그러나 문제가 많은 사람은 복음을 더 잘 받는다. 어떤 사람은 던져주는 주보에 적힌 불신자상태를 보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한다. 문제가 축복의 발판이고 말씀운동의 문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결론나면 하나님은 이런 문을 많이 열어주신다. 70현장을 열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3)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디도서를 통하여 73가지가 넘는 잔소리를 하고 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세어봤다. 디도의 입장에서 명령, 부탁, 잔소리, 위탁이더라. 다 일거러다. 엄히 꾸짖으라고 하기도 한다. 스승이 할 수 없는 부탁들이다. 여러분이 그만큼 능력 있고 소중하다는 말이다. 이 73가지는 전도운동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잔소리다. 그러나 현장을 복음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려고 생각하는 디도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스승 바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절대미션이며 완전복음이다. 그 대표적인 완전복음의 말씀들을 함께 보겠다.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영육 간에 흠과 티가 없이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 만들어져 가야한다. 장관이 되려 하면 청문회 하면서 온갖 것을 다 털리지만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당신 같은 사람이 장관이 되어야 한다고 고백할 만큼 살아야 한다. 디도서 1장 7절에서 8절이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우리는 책망할 것도 많고 고집도 세다. 험기도 많다. 한국 사람은 기분 좋아서, 나빠서, 반가워서 술 마신다. 한국 사람들은 술을 영혼으로 마신다.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은 민족이다. 복음으로 치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

다. 2장 2절에서 8절 말씀이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디도서의 말씀들이 구원과는 상관없다. 그러나 이렇지 않으면 현장에 망대를 세울 수 없다. 현장에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

(4)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젊은 목사 디도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고 있다. 디도서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사도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이것을 말하고’ 다락방, ‘권면하는’ 미션홈, ‘모든 권위로 책망하는’ 목회자의 권위,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 받지 말라’는 목회자의 권능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회자다.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사님을 세우셨음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할수록 조심해야 한다. ‘내가 헌금 많이 했는데’ 생각하면 망하는 길이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해야 한다. 그레 램넌트다.

(5) 그렇다면 하나님의 참된 복음과 절대목표는 무엇일까?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알 수 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깨끗하게 하신 게 구원이다. 그리고 그 구원하신 이유가 전도자의 삶이다. 완전복음을 위한 절대목표다. 현장에서 70망대를 세우고 237나라를 살려야하기 때문이다. 제가 현장에 가보면 다 싸우고 있다. 기본이 안 되어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73가지 잔소리를 하나하나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는데 옛 체질 그대로 가지고 살게 된다. 현장의 흑암을 이길 수 없게 된다. 사단이 ‘사단아 나가라’해서 쫓겨나는 게 아니다. 문제 왔을 때 믿음의 고백할 때 쫓겨난다. 어떻게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한다. 다시 사위하고 재정비 하듯이 예배드리며 힘을 얻어야 한다. 예배의 현장이 최고의 축복의 자리이다.

오늘은 디도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를 적용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한다.

① Covenant. 언약과 복음이다. 디도는 Nobody와 Nothing의 현장을 복음으로 다 살리는 Everything으로 만든 램넌트 전도자였다. 즉, 디도는 흑암현장을 빛의 현장으로 바꾼 램넌트 망대와 램넌트 파수꾼이었다. 여러분도 이렇게 응답받으시기를 바란다.

② Vision. 비전이다. 우리들의 비전은 237나라 5천 종족들 가운데 디도와 같은 TCK제자를 찾아 파송하는 것이다. 저는 TCK친구들을 보면서 이 친구가 제자일지 생각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될 때 제자를 붙여주실 것이다. 램넌트 미래그림을 그리며 현장의 제자를 찾아내야겠다. 237나라를 살리면 237경제가 다 우리에게 회복될 것이다.

③ Dream. 꿈이다. 만약 우리들이 24시간 디모데, 디도와 같은 램넌트 망대를 찾기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④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들이 사탄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 원하시는 어두운 현장을 향해 조금만 기도로 집중한다면 모든 문제가 응답과 축복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⑤ Practice. 지속적인 실천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조금만 도전해도 절대불가능을 절대가능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끝으로 237나라에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통하여 치유서밋의 시스템을 세팅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망대와 램넌트 망대로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의 삶과 디도의 사역을 통해 언약과 미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어떤 현장이라도 파송되어 그 현장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의 주역, 그리스도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